

## A Challenge about Tolerating Sin 죄를 용인함으로 오는 도전 (고린도 전서 5 장)

### A Telling Culture-Shift

Back in 1991, Canadian theologian Don Carson'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was published. In his introduction he mentioned that John 3:16 had been one of the most well-known Bible verses...though had likely lost its place — at least in the world of non-believers to Matthew 7:1 where Jesus said,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Over the last 30 years...it seems that this verse has become even more popular among many unbelievers — perhaps as a way of trying to silence judgmental church-goers...maybe in some way to avoid their own admission of sin + ultimate judgement.

Either way, that culture has impacted Church-communities as well...where many churches + individuals have lost confidence to make godly judgements to impose consequences on important matters...while being quick to judge + offer criticism over trivial matters. The culture continues to influence us into suppressing the sin we ought to expose + exposing the petty annoyances we ought to forbear. That's exactly what was happening in 1st C Corinth where immorality wasn't just being tolerated...but proudly celebrated

Godly Church discipline is taken seriously here at CPC....

The elders really do care for: 1. your spiritual welfare, individually...2. our moral purity, corporately...+3. God's honor, ultimately.....

Godly leaders make difficult resolutions that come at a cost — in order to prioritise these three aims 1. Individual spiritual good 2. Corporate moral purity + 3. God's glory  
It's those three aims that Paul commends to the Corinthians

### 꽤 충격적인 문화적 변화.

1991년 캐나다 출신 신학자인 돈 카슨이, 요한복음 주석을 출판했을 때, 그의 책 서론에서 그는 요한복음 3:16 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말하기 요한복음 3:16 절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잘못 이해된 구절이기도 하다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특별히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이 구절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한 구절로 잘못 남용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 교회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이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한 지적과, 이에 관한 결과에 대해 말하는 확신을 잃게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죄를 억누르게 하고, (죄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형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그들은 비도덕한 죄의 문죄에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캔터베리 교회에서는 경건한 교회의 징계를 중대한 일로 여깁니다.

장로님들은 진실로 여러분의 개인적 영적 안위와 우리 공동체의 도덕적 순결함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중대한 일로 여깁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은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가운데 내려집니다. 1. 개인의 영적 안위, 2. 공동체의 도덕적 순결함 3. 하나님의 영광.. 이런 3가지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A question from the passage, 'do I love my Christian brother or sister enough to be willing to suffer — even to lose their friendship — to help them spiritually?'....If not, then it may well be that the culture — as for ancient Corinth has influenced us into tolerating sin that we should expose + oppose...

### The Doubly Dangerous Problem & its Solution (1-5a)

V1, 'It is actually reported that there is sexual immorality among you, and of a kind that is not tolerated even among pagans, for a man has his father's wife.'

We remember back in 1:11 that it was Chloe's people who reported to Paul about the quarrelling in the church. Now, after having spent the first chapters dealing with divisions + the arrogant imposters who were leading them astray....Paul exposes the next major issue in the report that was confronting the Corinthians. 'Sexual immorality' — again it's the word from where we get the term, 'pornography.' It means any sexual relationship outside of marriage ..... This was rife among unbelievers in ancient Corinth..... but in this case...Paul highlights the added horror that it is of a kind that's not even found among them. 'a man has his father's wife.' The immorality was the sexual union b/w a member of the church + his step-mother. It was a case of incest — the OT law in Leviticus 18 prohibited any kind of sexual contact with such family members.

This man was in grave danger....but the response from the Corinthians shows the double danger.... v2, 'And you are arrogant! Ought you not rather to mourn?' Their response should have been grief — the word conveys 'deep sorrow as one mourns for the dead' but instead they were 'arrogant.' It's the word we saw last week also translated 'puffed up.'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 그들의 죄를 지적 하도 드러낼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러내고 대항해야 하는 죄를, 대신 묵인하고, 관대히 여기는 현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1 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는 1:11 의 말씀을 기억하길, 글로에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 바울에게 보고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교회 안에 거짓 교사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큰 문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음행”의 문제로,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로부터 유래 되었고, 이는 결혼 울타리 밖에서 이뤄지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놀람 가운데 지적하는 사실은, 이런 이방인 사이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근친상간으로, 레위기 18 장에서는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이런 성적 범죄의 위험 가운데, 바울은 더욱더 큰 문제를 2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한히 여겨야만 했습니다. “통한히”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잃게 되므로 겪게 되는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통한한 마음 대신 거만했다고 말합니다.

How could that be? It seems their problem of pride that attached itself to celebrity leaders — was generalised — to remain proud even though such shame was in their midst. The Greco-Roman culture celebrated the rich + powerful who wielded their power by being ‘benefactors’ — patrons — sponsors. In exchange for their contributions they were paid with status. It’s likely that this man had a position of power among them....but instead of loving him enough to risk the loss of his patronage....his status enabled the Corinthians to remain proud. So, Paul summarises his solution...End of v2, ‘Let him who has done this be removed from among you.’ The man needed godly discipline...not godless acceptance of his evil.

v3, ‘For though absent in body, I am present in spirit; and as if present, I have already pronounced judgment on the one who did such a thing. When you are assembl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my spirit is present, with the power of our Lord Jesus, you are to deliver this man to Satan...’

The Apostle guides them by pronouncing his judgement....but more than that — their orderly discipline with the power of the Lord Jesus as a church on the sinner....to hand him over to Satan...It begs the question .... what does Paul mean to hand him over to Satan? It’s the effect of removing the man from among them + putting him back into the unbelieving world... In Ephesians 2:2, Paul reminded the church that they used to follow the prince of the air at work in the world.....In John 16:11, Jesus called Satan ‘the prince of this world.’ So, to put the man out of the church was to hand him over to the world — the spiritual domain of Satan....It’s to say, ‘you’re living like a pagan, not like a follower of the Lord...so you must not pretend that you follow Jesus any longer.’ Whatever the unbelieving world wants to claim about not judging or else you will be judged....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시 죄로 인한 수치심 가운데서도, 이들이 거만함은 일반화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는, 부와 권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후원자/스폰서 가 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 범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 이렇게 죄를 범한 자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런 높은 지위 가운데 있는 자가 교회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 절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남성에게는 그의 사악함에 대한 수용인 아닌, 경건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3~5 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자신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그러나 이보다 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징계하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는 말씀입니다...바울이 이런 말을 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교회로부터 이 사람을 분리하여, 믿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냄을 의미합니다...에베소서 2:2 에서 사도바울은 말씀하길, 우리는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 합니다... 요한복음 16:11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자를 밖으로 쫓아내란 말씀은, 사탄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내어 주라는 말씀입니다...즉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으니...예수님을 따르는 척을 그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비판하지 말라는 세상적 문화와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Jesus certainly didn't prohibit godly judgements associated with church discipline. + while at many times, church leaders have gotten it wrong by being unloving, harsh + hypocritical.....we see that such severe discipline has entirely holy + God-glorifying reasons....firstly in handing the man over to Satan, it's....

### The Holy Reasons for Discipline

- For the Good of the Sinner (5b)

v5b, 'for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so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Unlike the abusive punishments of flawed leaders...Unlike the idolatry of the world surrounding tolerance of whatever goes...God has an entirely good goal in the discipline of the sinner caught in such sin...His flesh destroyed so his spirit might be saved on the great day of judgement.

What does it mean by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Paul often speaks of 'the flesh' as our sinful appetites — our lusts. Here, the picture is Satan acting as an unwitting agent to bring a final good under God's sovereignty. If the man truly has the Spirit of God residing in him....the effect of coming under Satan's authority will be to let sin run its course until the man in utter ruin...repents of his folly + turns to Jesus as Lord.

The first reason for godly Church discipline is for the good of the sinner. In his work known as 'The Mortification of Sin' 18th C Puritan, John Owen said:

"The vigor, and power, and comfort of our spiritual life depends on the mortification (destruction) of the deeds of the flesh." So, whenever we practice church discipline — the first reason is for the good of the sinner — but it can only happen by the gracious sovereignty of God as far as He is at work in ultimate correction.

Loving the sinner while loathing the sin leads to a holy willingness to count the cost...short term pain for long term gain....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교회 징계적 차원의 심판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사랑이 없고 매정하며, 위선적인 태도로 징계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 이런 징계의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 발견하게 됩니다.

### 징계의 거룩한 목적들.

- 죄인의 유익을 위함임.

5 절 후반,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징계와는 다르게...죄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따르게 되는 징계에는 육신을 멸함으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육신을 멸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만약 징계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철저한 망가짐과 육신의 고통을 경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사람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낮아짐 가운데 그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의 첫 목적은 죄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8 세기 청교도 존 오웬이 "죄 죽임"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삶의 활력과 힘과 위안은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데 달려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죄인의 유익을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궁극적으로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에 달린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함은, 장기적 유익을 위해, 단기적 희생을 감수하려 하는 거룩한 의지로 인도합니다.

- For the Purity of the Church (6-8)

v6, ‘Your boasting is not good. Do you not know that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Though these days ‘yeast’ is the most well-known ‘leaven’ or agent to cause the dough to rise....Sour dough is made by a piece of dough that has literally gone ‘sour’ I.e. over time begun to ferment or to ‘go off’ & act like yeast. The small piece of leaven affects the whole batch. Paul now draws out his application from the example....

V7, ‘Cleanse out the old leaven that you may be a new lump, as you really are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lamb, has been sacrificed.’ The ‘old leaven’ is a metaphor for the contamination of sin — to cleanse is to remove the contaminant — to reflect who they really are — a batch of unleavened or uncontaminated people.

The OT shadow or pattern that Paul mentions is the Passover —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the pattern tied to the Passover where the Israelites were commanded because of the haste with which they were to leave Egypt — not to add leaven to their dough — there was no time to delay when God was saving them.

The fulfilment now is that Christ is the Passover lamb whose blood rescues us from sin.....to set apart His people in purity.....which is why he says...v8, ‘Let us therefore celebrate the festival, not with the old leaven, the leaven of malice and evil,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징계 (6~8 절)

6 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트로 알려진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입니다. 빵을 부풀리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 발효가 돼서 시큼해진 반죽을 조금 섞어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지나 시큼해진 반죽이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양의 누룩은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이런 누룩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7 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 함은, 죄의 오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함은, 이런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된 자임을 인식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그림자인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무교절과 연결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무교 병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교 병은 누룩을 더 하지 않은 빵으로, 이들이 무교 병을 먹음은,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연치 않고 신속히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구약의 그림자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8 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빛은 빵으로 지킵시다.” (새번역)

To add leaven in the Old Covenant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n act of unbelief... To add leaven in the New Covenant was to ‘feast on’ sin ‘malice + evil’

The great logical consequence of Christ’s rescue from sin + death + judgement is the opposite — to celebrate life in Him with sincerity — the word conveys the exposing of a pure inner motive & to enjoy purity of life with walking in truth.

It’s the joy of life in Christ that He has redeemed us to be a Church that is corporately pure as each of us takes responsibility to be who Christ has saved us + set us apart to be! Jesus Christ is the lamb of God who has rescued us from sin. He is the only reason we are set apart for God’s holiness... Discipline is for the good of the sinner + so that we’ll be pure as He has made us to be + now we see, it is....

### • For God’s Glory (9-13)

v9 ‘I wrote to you in my letter not to associate with sexually immoral people— not at all meaning the sexually immoral of this world, or the greedy and swindlers, or idolaters, since then you would need to go out of the world. But now I am writing to you not to associate with anyone who bears the name of brother if he is guilty of sexual immorality or greed, or is an idolater, reviler, drunkard, or swindler—not even to eat with such a one.’

It seems from v9 that in the 3 or 4 years since he’d left Corinth that Paul had written to them once before. Now he clarifies the instruction from that letter about what he meant by not associating with sexually immoral people. Not at all meaning those outside the church.... + then he adds a series of defining sinful characteristics apart from the sexually immoral — outside the church... ‘the greedy’ — those who covet what others have... ‘swindlers’ — those who extort + cheats to gain advantage... ‘idolaters’ — those who serve false gods.

Paul didn’t call for disassociation with these kind of people in the world (otherwise he says, you would need to leave the world)... But rather, not to associate with anyone who calls him/herself a brother or sister in Christ yet is marked by a pattern of unrepentant sexual sin, greed, idolatry, swindling — & then adds two more — reviler or ‘abusive person’ + drunkard....

###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징계 (9-13 절)

9-11 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불리는 자들이 이런 죄를 행하다 한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Now, Christians fall into such sins — but the true Christian while falling into sin + struggling with sin....is a follower of Christ as Lord....At the very least it means they won't continue to let such sin be the status quo....If that begins to happen they deceive themselves....if they are a member of a church + the church tolerates such sin — the church not only encourages the sinner in their sin...But pollutes itself + finally....because it dishonours the Lord

v12, 'For what do I have to do with judging outsiders? Is it not those inside the church whom you are to judge? God judges those outside. "Purge the evil person from among you."'

In the final section of this passage, we see particularly that Paul separates the church from the 'state.'

It's different to how it was in the OT. The state in the OT was the kingdom of Israel — where judgements were made on the people when they broke God's moral law. As we saw in Exodus 19 — God had made his people a kingdom of priests & a holy nation. Their purity was ultimately for His glory.

The church — not the state is the place where God's loving discipline is exercised — for His honour. The struggle in every church is to discipline well. Like parenting....the temptation is to be soft where we need to be firm....& harsh where we need to be tender

It's often tempting to let things slide — it's hard to deal with because we know it's a battle — we know there'll be consequences — we doubt ourselves — we don't want to count the cost. When it does finally happen...it can at times be reserved for what we as parents think are major crimes.

Similarly....the temptation for church leaderships is to reserve discipline only for 'major sin' .... but there are many marks of worldliness that require discipline — when they dominate a self-proclaimed Christian....Do I love the 'greedy Christian'... even the brother or sister who has a pattern of attacking others with abusive language .... enough to count the cost?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에 빠지고, 죄와 씨름하더라도...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자이기에...적어도 이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는 않습니다...만약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만약 이런 자가 교회의 교인이며, 이런 죄를 교회가 묵인 한다면...이는 교회가 죄를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며...주님의 영광을 손상 시키는 행위입니다.

12~13 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정부가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징계를 실행하는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징계를 잘 실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겪는 어려움과 같이, 교회의 징계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단호해야 할 부분에 있어 너무 관용적으로 대함에 있고...관용적으로 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너무 가혹하게 대함에 있습니다.

## Discipline, not Condemnation is for Saints

When Jesus said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He followed it up with the speck we readily notice in a brother’s eye while missing the log in our own .In other words, the kind of judgement that Jesus prohibits is petty, hypocritical condemnation — the essence of being ‘judgemental.’

Jesus goes on to say, ‘deal with the log in our own eye first to see clearly to help with the speck in our brother’s eye.’ We must always begin with ourselves before God concerning sin in our own lives. In Christ, we aren’t condemned — in God’s sovereign grace, discipline is corrective for our good, for our purity + for God’s glory. That’s why discipline, not condemnation is for saints. In Christ, spiritual feasting is guaranteed to follow!

### 정죄가 아닌 성도의 징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 이후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은, 사소하고, 위선적인 정죄로, 이는 비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죄를 대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먼저 살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섭리 아래, 징계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의 징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영적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